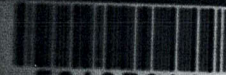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滋賀県立大学



50485911

과학원 출판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역사 연구소 편집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정 오 표

페이지	행	오	표
70	30	《곰부니프》	《곰부니스프》
77	9	한제(武帝)	한 무제(武帝)
132	26	자존오르	잔존오르
150	25	대 동 강	대 동 강
271	16	1596년	1956년
277	18	판개사회	판개 농업 사회
282	8	유 진	위 진
301	14	인 식 적	인 신 적
314	31	鄒 敦 索	鄒 敦 索
317	27-28	遺 達 賈, 檀 盧 城	遺 達 賈, 檀 盧 城
397	29	大人爲使者	大人爲主者
434	22	羅臨屯眞審呂并	羅臨屯眞審呂并
437	33	玉不聽	王不聽
438	7	明黨比周	朋黨比周



과학원 출판사

내 용

서 문

조선 원시 사회 붕괴의 특수성과 봉건적

우플라드의 발생 과정.....김 광전(1)

삼국 시대는 봉건 시대가 아니다.....도 유희(24)

삼국의 사회 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림 전상(74)

조선에서의 노예 소유자적 사회-경제

구성체에 관하여.....한 길언(145)

고구려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대하여.....정 찬영(183)

조선 역사는 노예 시대를 경과하였는가.....강 병도(219)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을 해명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채 회국(231)

동방적 노예 소유자 사회의 성격에 관하여리 능식(265)

조선 고대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본 삼국

시기 근로 인민들의 사회-경제 생활

정형에 대하여.....한 롱옥(283)

고구려에서의 토지 소유 관계.....로 정한(294)

백 남은 월사의 토론 요지.....(336)

삼국 시기 이전의 국가 발전에 대한 고찰정 회영(350)

조선 노예 시대 문제 소론.....리 응수(392)

삼국 시대의 사회 경제 구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엄 창중(411)

서 문

이 토론집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1956년 10월 과학원 역사 연구소에
서 주최한바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동
지들이 각각 자기의 토론 요지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개중에는 이 토론에
는 참가하지 않고 그 후에 집필된 논문들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상대의 사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나라
사학계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 노동당 제 3차 대회가 사상, 과학 사업 분야에서 제시한 정
확한 조선에 근거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우리 사학계에 존재하는
중요 문제들을 옳게, 또 급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역사 학도들에게 부과
된 가장 긴급하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인 것이다.

더우기 이 문제는 제 3차 당 대회가 강력히 제시한바, 과학 연구의
기초 축성 문제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우리가 기왕에 해당 토론회를 가졌고 계속하여 이 논문집을 발간함으
로써 이 문제의 정확한 해명을 향하여 한 층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또 더
욱 많은 독자들을 이 문제의 해결에 인입하게 되는 것은 의의 깊은 일로 생
각하는 바이다.

이제 많은 독자들에게 방조를 주기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에
집필된 주요 논문, 저서 혹은 교재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33년 백 남운 《조선 사회 경제사》(일문, 개조사판)

1937년 백 남운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일문, 개조사판)

1947년 할 길언 《조선 고대 국가 성립 과정》(조선 역사 편찬회편,
《조선 역사 연구 논문집》)

1948년 리 응수 잡지 《역사 제 문제》 1948년.

1951년 백 남운 《조선 역사 교재》(정치-경제학 아카데미야편)

1954년 박 시형 《조선 역사 교재》(정치-경제학 아카데미야편)

1955년 림 진상 《조선 역사 교재》(조선 노동당 중앙당 학교편)

1955년 김 광진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 제도의 발생 과정》(잡지 《역사
과학》 1955년 제 8호 및 9호)

1956년 도 유호 《조선 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시대가 없었는가》(잡지 《력사 과학》 1956년 제 3호)

1956년 김 광진 《삼국 시대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잡지 《력사 과학》 1956년 제 5호 및 6호)

1956년 미하일 박 《신라 국가에 있어서의(3~6세기의) 사회 경제적 관계의 성격에 대하여》(쓰런 잡지 《력사 계 문제》 1956년 제 7호)

이 외에 1953년 9월 사회 과학자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던바, 여기서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었다.

이상의 논문 혹은 토론들에서 나온 여러 동지들의 논지는 때별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즉 하나는 조선에 일찌기 노예 소유자적 구성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논조들의 각기 내부에도 상호 부동한 견해들이 있었다. 즉 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재를 주장하는 논자들도 이 구성의 시작과 붕괴의 시기에 대한 문제, 또는 이 구성이 존재한 개별적 국가들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었으며, 또 그와 반대로 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재를 반대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조선에서의 원시 사회의 붕괴와 봉건 제도 발생의 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견해들이 같지 않았다.

1956년의 토론회는 각 학도들이 더욱 자기의 관점을 리론적으로 심화하고, 다른 논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참작함으로써 이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 한 층 노력하려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학도들이 토론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견해들을 진지하게 피력하고, 상호간 허심하게 타인의 견해들을 경청하였다. 토론회에서 모든 논자들이 다 완전히 같은 의견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논자들에 있어서나 그 논조가 종래의 그것들보다 훨씬 심화 구체화되었고 또 다른 관점들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 견해의 부정확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는 사실들도 적지 않았다. 또 전체 토론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 학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되었다.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거기에 중점을 들었으며, 또 아마 앞으로 이 방면들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조선에서의 생산력의 발전과 및 이에 상응하여 생산 관계가 발

전하여 나아 간 과정과 관련하여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조선 원시 사회 내부에서의 생산력 발전의 정도와 그 성격은 필연적으로 그 구성의 붕괴 과정과 앞으로 형성될 구성의 성격에 일정한 특수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토론들에서는 많은 문헌 자료들과 기왕의 발굴 성과들이 검토된 의되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당시의 외국 특히 중국의 생산력 발전 및 그 사회 성격과 조선의 그것들과의 대비에 관하여 많은 토론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 첫걸음을 내어 디디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조선에서의 국가 성립의 시기와 및 그 성격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토론되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확한 의미에서의 국가로 성립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에 적지 않은 주목이 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는 삼국의 사회 구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한 개 중요한 고려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 하나에만 관련하여서도 상당히 그 차이가 현격한 견해들이 있었다.

다음에 조선 삼국의 사회 구성과 이른바 고대 동방 제국의 노예제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신중히 토론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의 형태에 관한 문제, 관개 수리 사업에 관한 문제, 상업의 발전에 관한 문제, 전제 왕권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토론되었다. 이 분야에서 거의 전부의 토론자들이 일치하게 도달한 것은, 종래에 조선의 노예제를 논할 때에 이를 식인하는 논자들이나 또는 이를 부인하는 논자들이나를 불문하고, 다 자칫 하면 조선의 형편을 희랍, 로마의 소위 고대 노예제와 가깝게 보던 견해들을 일소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저한 일보 전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조선에서의 공동체의 분해 과정과 및 그 잔재 형태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토론은 전개되지 못하였지만, 역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에 조선에서의 노예제의 발생, 발전과 특히 그 붕괴에 관한 문제가 토론되었다. 노예제를 식인하는 논자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거의 차명한 것으로 보았지만, 부인론자들은 오히려 이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형편이었다.

다음에 삼국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각종 형태의 계급, 계층들에 대한 의미의 해석 문제가 많이 토론되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극단으로 대립되는 견

해들이 있는 동시에 또 사실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그 거리가 적지 않게 접근된 견해들도 있었다.

이 이외에 또 전쟁 포로에 관한 문제, 부곡에 관한 문제, 순장에 관한 문제 및 기타 많은 문제들이 해부 조상에 올랐는데, 많은 토론들은 확실히 우리의 학계가 그간 많은 전진을 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것은 몇몇 동자들이 조선 상층의 사회 구성을 논함에 있어서 하필 삼국으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 즉 고조선, 삼한 등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과 또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연구에 우리가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점들이다. 이 논점은 물론 타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 토론회를 통하여 아직 많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반면에 적지 않은 점들에서 일치점들이 발견되었고, 또 매개 이론들이 심화된 것을 력력히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거대한 성과들인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에게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 과학 이론의 파악이 부족한 것.

둘째로 이 문제와 관련되는 고문헌상의 자료가 료료하며, 또 고고학 및 기타 보조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들이 아직 미약한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들은 물론 우리가 일정한 시일과 노력을 거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곤란들이다. 첫째 곤란은 우리가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이 선진적 이론에 비추어 기지의 사료들을 더욱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곤란중에서 특히 문헌의 부족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새 사료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또 기지의 사료들에 더욱 심각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다만 기부증정의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고고학 분야로부터의 방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심심한 배려에 의하여 거액의 예산을 투하한 발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방면에서의 성과들은 벌써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자기의 연구를 계속하며, 더욱 허실하게 동지들의 의견을 상호 참작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자기의 불필요한 편견을 고집하지 말고

집체적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특히 이러한 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력한 공간으로 된다는 것은 이번 토론회가 실지로 증시한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집체적 토론회를 계속 활발히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토론회는 그의 시초로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지는 많은 독자들은 이 토론회에 게재된 문헌들을 참고하는 동시에, 또 지난 번 토론회의 실제 정형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기 위하여는 노동 신문을 위시하여 당시의 수개 신문 및 잡지들에 게재된 소개 문헌들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1957년 6월 일

과학원 력사 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능을 수행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고구려 종족들에 있어서의 인민
 궤의와 같은 그러한 씨종족(氏種族)적 통치 기구는 특권자의 지배 기관으
 로, 통치 기관으로 전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용작(傭作)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용작인들은 그가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고용되는 관계로 보아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용작인으로 전변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신분은 만약 당시
 의 고구려 사회가 노예 소유자적 착취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우선 먼저
 노예로 전변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용작인들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사회는 가부장적 노예를 비롯한 기타 노예
 적 착취가 다분히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
 계가 지배하는 사회로는 되지 못하고 봉건적 생산 관계 즉 농노적 착취 관
 계가 지배하는 사회로 발전을 계속하였다.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 론 집

1958년 3월 10일 인쇄
 1958년 3월 25일 발행

편집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연구소
 발행소 과학원 출판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④ -158 값 225원 발행부수 10,000부

서 문

이 토론집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1956년 10월 과학원 역사 연구소에
서 주최한바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동
지들이 각각 자기의 토론 요지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개중에는 이 토론에
는 참가하지 않고 그 후에 집필된 논문들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상대의 사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나라
사학계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역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가 사상, 과학 사업 분야에서 제시한 정
확한 로선에 근거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우리 사학계에 존재하는
중요 문제들을 옳게, 또 급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역사 학도들에게 부과
된 가장 긴급하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인 것이다.

더우기 이 문제는 제 3차 당 대회가 강력히 제시한바, 과학 연구의
기초 축성 문제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우리가 기왕에 해당 토론회를 가졌고 계속하여 이 논문집을 발간함으
로써 이 문제의 정확한 해명을 향하여 한 층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또 더
욱 많은 독자들을 이 문제의 해결에 인입하게 되는 것은 의의 깊은 일로 생
각하는 바이다.

이제 많은 독자들에게 방조를 주기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에
집필된 주요 논문, 저서 혹은 교재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33년 백 남운 《조선 사회 경제사》(일문, 개조사판)
1937년 백 남운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일문, 개조사판)
1947년 한 길언 《조선 고대 국가 성립 과정》(조선 역사 편찬회편,
《조선 역사 연구 논문집》)
1948년 리 응수 잡지 《역사 제 문제》 1948년.
1951년 백 남운 《조선 역사 교재》(정치-경제학 아카데미야편)
1954년 박 시형 《조선 역사 교재》(정치-경제학 아카데미야편)
1955년 림 건상 《조선 역사 교재》(조선 로동당 중앙당 학교편)
1955년 김 광진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 제도의 발생 과정》(잡지 《역사
과학》 1955년 제 8호 및 9호)

가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왕조가 더 잘하게 하려는 의도
들을 경청하였다. (토론회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완전하게 같은 의견에
까지 못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들에 있어서는 > 본초적 통례의 일 것
과 훨씬 심화 구체화되었고, 또 다른 관점들을 들은 과정에서 자기 전
부정확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문제를 시정하는 사실들도 적지 않았다. 또
토론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유려하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욱 깊어졌다.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계차에 증진을 꾀할 것>, 또
앞으로 두 방향들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문
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토론> <토론> <토론>
첫째로 조선에서의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대응하여 생산 관계가 발